

'갓바위' 조성한 의현대사 혼 재조명

11월 5일~6일 영남대서 공연
음악·춤·연기 애절한 뮤지컬
최주봉, 전재홍 등 호화 캐스팅

흔히 '갓바위'로 불리는 경산팔공산 관봉석조여래좌상에 얽힌 설화가 창작 뮤지컬로 각색돼 무대에 오른다. 제목은 '천년혼'이다. 11월 5·6일 양일간 오후 3시와 저녁 7시 30분에 영남대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에서 공연된다.

이번 작품은 J&C 코리아 뮤지컬 컴퍼니 정광진 대표가 대본을 쓰고 예술감독을 맡았다. 정 감독과 갓바위의 인연은 1998년부터 시작됐다. 그해 연극 '갓바위'의 대본을 썼고 2007년에는 뮤지컬 '갓바위'를 선보인 바 있다.

정 감독은 "천년혼을 쓰면서 어려운 불교적 용어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썼다"고 했다. 그는 또한 "경산에서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지역 뮤지컬로 탄생했지만 완성도 만큼은 대한민국 어디서 공연해도 빠지지 않는 뮤지컬을 만들려고 많은 고민

을 했다"고 강조했다.

정 감독이 '천년혼'이란 제목을 정할 때 많은 고민이 있었다. 정 감독은 "1천 400년 전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유래도 모르면서 올라가 마냥 기복적으로 빌기만 하더라구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죠. 역사가 깊은 문화재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갓바위를 조성한 의현대사의 정신이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며 그 혼을 이어받자는 의미에서 '천년혼'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라고 취지를 설명한다.

이 작품은 1천400여 년 전 관봉 아랫 마을에 살던 석수장이 무덤이 우여곡절 끝에 악사여래불(일명 갓바위)을 완성한다. 이후 헤어져야만 했던 사랑했던 여인을 다시 만나 그 여인의 품속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줄거리이다. 한마디로 효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극화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기 위해 기획한 창작 뮤지컬이다.

정 감독은 대본 역을 맡은 최주봉 씨와 다시 만나 의기투합했다. 1990년대 초 인연을 맺었지만 그동안 한 번도 같이 공연한 적이 없었다. 정 감독은 "최주봉 씨가 대본

을 보고 대사가 정이 가고 노래 가사도 좋아 좋은 작품이 되겠다며 선택 출연을 결정해 줘 고맙다"며 "지난 15년 동안 '천년혼'을 위해 갓바위에 매달렸던 노력과 열정으로 꼭 이 뮤지컬을 성공리에 공연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작품의 연출에는 송한봉, 작곡에 마창욱, 안무는 서경선씨가 각각 맡는다. 출연진은 의현대사 역에 전재홍, 설이 역에 구민진, 대봉 역에 최주봉, 원광법사 역에 박용, 비조 역에 이상민, 탁노 역에 이정성, 반굴 역에 손성호가 각각 캐스팅 됐다.

특히 출연진들중에는 뮤지컬계의 블루칩으로 불리는 전재홍, 2003년 뮤지컬 명성황후에 출연한 구민진, MBC 드라마 한지붕 세 가족의 만수 아빠로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었던 최주봉 등 우리나라 뮤지컬을 대표하는 배우들이 대거 선보일 예정이어서 공연전부터 열기가 후끈하다.

10월 6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제작발표회를 가진 '천년혼'은 갓바위에 얽힌 설화를 뮤지컬화한 것으로 음악, 춤, 연기가 애절하면서도 웅장하며 대중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된 뛰어난 수작으로 평



주요출연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가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번 제작 발표회에서는 제작 스태프와 출연 배우 40여명이 총 출동해 창작 뮤지컬 '천년혼'의 제작에 임하는 각오와 주요 장면들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날 공연을 지켜본 최영조 경산시장도 "감성적이면서도 격정적인 작품으로 관객들의 큰 호응이 기대된다. 경산을 대표하는 뮤지컬로 성공해 경산지역의 보물인 '갓바위와 경산'이 전국공연을 통해 널리 홍보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필 기자 kimj4217@hyunbul.com



뮤지컬 '천년혼' 주인공인 의현대사(전재홍 분)와 설이(구민진 분)가 손잡고 밀어를 나누고 있다.

한·중·인도·티베트 문화재 한자리에

불교전대중앙박물관 개관 1주년 특별전 '서쪽에서 온 불행'

천태종 불교전대중앙박물관이 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서쪽에서 온 불행'을 연다. 10월 12일~12월 28일 열리는 전시는 티베트, 중국, 한국의 불화·경전·불상·공예품 등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불화는 티베트의 참회35불도, 타라보살의 팔난구제도, 중국의 나한도, 불화첩, 수록도 및 조선시대 아미타구존도, 충북도유형문화재 제29호 아미타구락회상도 및 근대 문고산 스님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신팔나한화첩 등 28점이 전시된다.

불교조각은 간다라 제석굴 설법 부조상과 청법부조상, 티베트 금동아축여래좌상과 금동나한상, 중국 청동여래좌상과 금동관세음보살좌상, 통일신라 금동소불과 조선 목조여래좌상·석조나한상 등 37점이 선보인다.

불교경전은 티베트의 사자의 서, 몽골 사경, 중국 청나라 감지금니사경, 한국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9(국보 257호)와 권74(국보 제279호), 보물 1714호 백지금니 <법왕보살계경> 등 10점, 불교공예는 간다라 보살장식과 금화, 티베트 오방여래관과 마니차, 중국 목조사자상과 창간 20주년

채색 목탁, 한국 금동 9층소탑(고려)과 목어 등 31점이 전시된다.

이 중에서도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제 29(고려, 1011~1031, 국보 257)은 국내에서 발견된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중 유일본이며 권제 74와 함께 11세기 경에 찍어낸 초조대장경의 원형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문헌자료다.

타라보살 팔난구제도(티베트, 17~9세기)는 중앙에 녹색 타라 보살이 그려져 있

불화·경전·불상·공예품 등 아시아 불교문화재 100점 전시

고, 주위에는 사자와 코끼리 등에게 습격당하는 신자와 타라보살의 본신이 고통받는 신자를 구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타라보살은 관세음보살의 눈동자에서 태어난 보살로 중생을 구제하는 능력이 있어 티베트 불교의 구제자로 여겨지고 있다.

'제석굴부조상' (파키스탄, 3~5세기)은 제석천이 부처님의 열반을 앞두고 음악의



티베트의 참회 35불도

정혜승 기자 bwjhs@hyunbul.com

장인들의 전통공예품, 큐레이터를 만나다

10월 16~29일 경북공서 '제12회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작품전'

전통장인의 예술 작품 전시에 젊은 큐레이터의 현대적 해석이 가미된 전시가 열린다.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이사장 이근복)는 문화재청의 후원으로 10월 16~29일 경북공서에서 '혼으로 이어온 장인'이란 주제로 '제12회 한국문화재기능인 작품전'을 개최한다.

작품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장인작품 전시회로 장인 100인과 중요무형문화재 장인 20여명이 참여해 120여점의 전통공예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악기장, 두석장, 갓일장 등 중요무형문화재들의 작품이 전시회의 초대전시로 함께 꾸며질 예정이며, 작품 전시뿐만

아니라 전통의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또한 전시의 출품작 중에서 기술성과 작품성을 갖춘 작품을 선정해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상, 문화재청 청장상,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상이 수여한다.

이번 전시회는 전통장인과 젊은 큐레이터의 협업으로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전시회를 담당하는 안유선·김준묘 큐레이터는 "무형으로 전승되는 장인들의 작품세계를 현대적 시선에서 공감할 수 있는 작품해석에 주목"했다며 "작품을 감상하며 일상의 생활속에서 전통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티브를 찾으면 좋겠다"



노정용 '금강역사상', 김식경 '해치상'

고 말했다.

문화재기능인협회 이근복 이사장은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문화 융성의 시대를 열어가자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는 장인들의 큰 행사이니 전시를 계기로 전통문화기술의 정신과 가치가 현대인들에게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02)3672-8803

이나는 기자 oasis1963@hyunbul.com

제6회 화불 동연전, 21일까지 갤러리 한옥서

용인대학교 불화대학원은 10월 21일까지 서울 가회동 갤러리 한옥에서 '제6회 화불 동연전'을 연다. 화불 동연전은 용인대 예술대학원 불화전공 동문들이 주축이 돼 매년 전통 창작 불화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올해에는 10명의 작가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작품에 담아 선보인

다. 참여 작가는 이태승 용인대 회화학과 교수, 이태승 조이락 용인대 불교화화연연구소 연구원, 현승조 간송미술관 연구원, 양승희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강사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불화 계승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시는 비단 위에 진채로 채색한 양선화

씨의 '법을 전하다'와 현승조씨의 '인드라마'를 비롯해 이태승씨의 '이열도' 등은 전통을 바탕으로 재해석한 창작불화로 볼 자존 아니라 대중이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특히 이번 전시는 작가들의 재능기부로 마련된 작품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전통계승 발전기금 및 인재를 위한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02)3673-4326

이나는 기자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

인등 불사와 범당 장엄을 한 번에... 면 자체 발광 성불원 LED 인등



발명특허번호 제10-1350047호

- 성불원 인등 확대 모습
- 범당 크기에 따라 2가지 크기 선택 가능합니다. 불화 자체가 장엄하게 빛을 발합니다.

성불원 LED 인등의 특징

1. 기존의 인등과 달리 월등한 밝기로 범당 전체가 장엄됩니다.
2. LED만의 저렴한 전기료와 긴 수명으로 누구나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원하시는 어떠한 배경 불화로도 제작 가능합니다.

수미단, 단집, 영단, 범상, 경탁 등 범당장엄 일체 제작 각종 범당불사 컨설팅 해 드립니다.

성불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전화 011-276-5251, 010-6857-0108

無碍 양학모 합장 인사 올립니다